

연변에서 온 이모

소중애 지음

웅진출판/A5신/186면/4000원

주인공 차영표는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똑부러지게 공부 잘하고, 깔끔하게 생겨 집안에서 ‘공주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소녀다. 어느날 영표네 식당에 촌스럽게 생긴 한 여자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연변에서 왔다는 사실이 영표를 사로잡고, 영표는 그녀를 ‘연변 이모’라 부르면서 따르게 된다. 또 이모에게 서울생활과 문화인의 면모를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재미도 갖는다. 한차례 일이 생길 때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연변 이모의 서울생활을 늘어놓아 ‘스타’ 대접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연변 이모는 촌스러운 옷차림과 사투리가 거의 세련된 모습으로 바뀔 즈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사기당한다. 영표네 가족 모두가 애석해 한다.

1학년생의 사랑 느낌

후루타 다루비 지음/김창현 그림

글사랑/A5신/166면/4000원

몸집은 크면서도 항상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요즘의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성장기 창작동화.

주인공 준용이는 1학년생 답지않게 키가 크지만 겁이 많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아이, 이에 반해 2학년생인 슬기는 전교에서 키가 가장 작지만 용기있고 성숙한 아이다. 준용이네 집 근처에 있는 언덕길은 너무 좁고 가파르고, 늪은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까마귀도 울어대는 무서운 길이다. 준용이는 이 언덕길이 무서워 혼자서는 도저히 학교에 가지 못한다.

어느날 학교에서 슬기의 용기있는 행동을 지켜보던 준용이는 자기도 용기있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다.

어린이 탈무드

이주훈 엮음

예찬사/A5신/198면/3500원

‘탈무드’는 5천년간의 유대인 역사에 있어 그들의 생활문화와 지혜를 담아둔 “지혜의 상자”이자 유대인들의 생활에 “거울 구슬”을 하는 책이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겪었던 불행한 일을 아들이 반복해 겪지 않도록” 아버지가 도움받았던 지혜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관습이 있다. 그 지혜가 탈무드에 수록돼 있는 것이다.

엮은이는 이렇듯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혜들을 모은 방대한 규모의 탈무드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혜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만을 발췌했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의 지혜가 커 나가기 바라는 마음이다.

재미있는 과학 매직

히지리 시노부 지음

국민서관/A5신/200면/4000원

기초적인 과학원리를 이용해 재미있는 마술의 세계를 보여주는 책.

저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과학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하다 보면, 과학이라는 분야가 전혀 난해하지 않을 뿐더러 쉽고 흥미있는 분야임을 알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매직 놀이’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과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풍부한 삽화와 사진,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매직 실험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 실험마다 과학원리에 대한 해설도 곁들였다. 과학과목에 흥미를 잃었거나 과학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에게 유용할 듯하다.



생각하는 역사이야기 (전 4권)

장경룡·김원각 엮음

천재교육/A5신/각 222면 내외/각 4000원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야기를 비롯, 고대 역사가 담긴 삼국유사를 어린이들이 읽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은 책.

‘단군신화’ ‘금와왕’ ‘주몽’ ‘김알지’ 등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갖가지 시조신화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했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함께 읽는 이야기’와 ‘생각 키우기’란을 마련해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이야기의 배경과 인물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다. 또 본문과 연결지어 풀이할 수 있는 문제를 던져주기도 한다.

각권의 말미에는 어린이가 직접 쓴 독후감을 한페이지 수록해 올바른 책읽기와 감상을 도와주는 게 이 책의 특징이다.

아빠가 들려주는 철학이야기 (1·2)

이주훈 지음/최달수 그림

현암사/A5변형/각 108, 100면/각 6000원

글과 그림으로 쉽게 풀어 쓴 재미있는 철학이야기.

중학교 1학년인 윤상이는 아버지한테서 철학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버지는 서양철학의 기초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들의 철학이 현대에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밝힌다. 또 철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특히 아버지와 윤상이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되며 ‘나’를 찾아가는 새로움을 맛보게 된다.

대상은 국민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이며 비판정신과 논리력을 동시에 길러준다.

꼬마 흡혈귀의 가족회의

A. 보덴부르크 지음/김서정 옮김

지경사/A5신/212면/3500원

귀엽게 생긴 주인공 안톤은 흡혈귀에 관한 책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소년. 어느날 안톤은 수두에 걸려서 학교를 쉬게 된다. 심심해 하던 안톤은 흡혈귀를 다룬 책에 빠져들고... 급기야 밤중에 창문을 열고 들어온 꼬마 흡혈귀와 대면하게 된다.

꼬마 흡혈귀 루디거는 안톤에게 흡혈귀인 안나와 울가를 소개하고 자신들의 흡혈귀 세계를 보여준다. 무시무시한 흡혈귀들의 가족회의에 참석한 안톤은 ‘이그노 폰 란트’가 정말 흡혈귀인지를 밝혀내는 일에 동참한다.

흡혈귀인데도 불구하고 루디거와 친구가 되는 안톤, 이들 꼬마 흡혈귀들과 함께 밝혀내는 ‘이그노 폰 란트’의 비밀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하얀 무지개

이슬기 지음/한상린 그림

불광출판부/A5신/236면/3500원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들여와 완강한 신라 사람들에게 순교로써 불교의 진리를 전파한 이차돈의 이야기.

이차돈이 어린시절에 얼마나 총명했던가를 알려주는 다양한 일화들이 재미있게 들어있다. 성장기를 거쳐 그가 불제자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 또한 ‘개척자의 슬픔’을 느끼게 한다. 신라인들은 불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교를 퍼려는 스님들을 모함하고 방해한다.

이차돈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라에 진정한 불교가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뜻한대로 신라에 불교를 전파한다. 그러나 그 댓가로 “하얀 무지개”와 같은 피를 뿌리며 죽어야 했다.

고양이 실뜨기 놀이

앤 애커스 존슨 지음
성인문화사/B6신/36면/7000원

실뜨기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손가락 발달은 물론 여럿이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책.

실뜨기는 손가락을 잘 움직이는 힘과 다음에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는 재미있는 놀이이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요리조리 걸고 엮어서” 재미있는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일러준다.

유아기 혹은 아동기의 어린이들에게 실뜨기 놀이를 통해 이 책에 수록된 모양 외에도 재미있는 모양을 발견해 내게 한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놀이를 하면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부처님 땅 (1·2)

이정범 지음/이희탁 그림
불지사/B6변형/각 70면/각 4000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불교의 불구와 건축물, 상징물 등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한 불교 길잡이.

불교가 따분하고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임을 일깨워주는 책으로, 제1권은 목탁, 염주, 풍경을, 제2권은 범종, 석등, 사천왕을 다뤘다. 각권마다 설명과 함께 삽화들을 풍부하게 수록해 책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5~7세 어린이들을 비롯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로 쓰이기에 적당하다. 더불어 불교와 관련한 학교의 교사들이나 부모들에게도 환영받을 만한 책이다.



“성균관 개구리 한술에 뛰어든다!”

자나 깨나 글을 읽는 사람을 밟지 않게 놀리는 말인 ‘성균관 개구리’ 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글발을 일구고자 6년 전 한술은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출판인들과 소중한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잘 여문 옥수수처럼 수수하게 빛나는 책의 얼굴 갖 나온 책들을 만족스레 쓰다듬으며 연신 고마움을 전하는 그분들을 배울 때 우리들의 피로는 파도 같은 희열로 끊어옵니다.

출판에 관계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출판전문 제작대행사-‘한술’, 우리의 힘은 바로 글을 사랑하는 ‘성균관 개구리’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출판전문회사 『한술기획』은 전자조판에서 편집교정, 자비출판, 제작에 이르기까지 출판 전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는행으로서 출판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성·신인작가들의 육고(玉稿), 출판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과 기존 출판사들께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



살꽃 이야기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조혜란 그림
오늘/A5신/178면/3800원

주제별 동화모음의 셋째 권으로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주제로 한 열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호수속의 오두막집」은 집이 호수에 잠기자 북으로 간 아들이 행여 집을 찾지 못할까봐 안타까워 하다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애절한 이야기. 손녀인 숙희는 할머니의 이러한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 길잡이가 되라고 안내판을 호숫가에 세워둔다. 그의 음모로 이사간 근태가 양짓당 육촌동생과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육촌 형」, 방귀를 참다가 병이 들었다는 우스꽝스런 이야기인 「용원이네 아버지와 순난이네 아버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살꽃 이야기」 등이 실렸다.

덩크슛

기영노 지음
동쪽나라/A5신/250면/4000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국내 농구스타는 물론 세계적인 농구스타들의 흥미진진한 애깃거리를 총집합시킨 책.

국내 농구스타로는 우지원, 문경은, 현주엽, 이상민 등 13명의 선수들을 다룬다. 그 외 NBA 신화를 창조해낸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록과 그 뒷이야기들도 조목조목 실었으며 농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농구장 안팎에서 일어난 갖가지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애깃거리들이 모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농구의 전반적인 역사와 함께 협동심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